



지난 해 12월27일 해인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법전 종정예하에게 최근 종단 현안을 보고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잘못된 사람 꾸짖어야”

법전 종정예하, 종단현안 보고받고 가르침
 총무원장 스님 “지혜롭게 풀어가겠다”답변

조계종 법전 종정예하가 “잘못된 사람은 꾸짖어야 한다”며 총무원 집행부의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 또한 법전 종정예하는 신년교시에서도 종도들에게 이같은 뜻을 분명히 전할 전망이다.

법전 종정예하는 지난 해 12월 27일 해인총림 해인사 퇴설당을 방문해 민족문화수호운동 등 최근 현안을 보고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며 이같이 가르침을 내렸다. 조계종 원로회의와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회의, 템플스테이운영사찰주지회의, 신도단체, 불교시민사회단체 등에 이어 종단의 최고 어른인 법전 종정예하까지 종단의 민족문화수호운동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종단의 민족문화수호활동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는 6일 열리는 신년하례를 며칠 앞두고 종단 현안을 법전 종정예하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음으로써 종단의 위계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법전 종정예하의 안부를 살핀 뒤 “최근 종단 일을 빨리 보고드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지를 갔다 오느라 보고가 늦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부장 영담스님(민족문화수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정부 여당이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하며 촉발된 종단의 민족운동수호 활동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법전 종정예하는 “깊은 물을 건널 때에는 내 키부터 재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종단 내

부부터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먼저 내렸다. 법전 종정예하는 “조직화되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기 마련”이라며 “종단은 아직 조직화되지 못한 만큼 하루속히 종단을 조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전 종정예하는 이어 “잘못된 사람을 꾸짖어야 한다”면서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정예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현안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법전 종정예하는 오는 6일 해인사에서 봉행되는 신년하례에서 신년교시를 통해 종단의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전 종도들이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해인사=박인택 기자

중앙신도회, 민족문화수호기구 구성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강력 규탄
 긴급회의 개최…실천위원회 구성 결의

중앙신도회를 비롯해 조계종 신도들이 참여한 각종 단체들이 민족문화 수호를 위해 특별 기구를 출범한다. 총무원과 교구본사 등 종단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족문화수호 위원회에 신도들도 보조를 같이한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총스님)과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조계종 교구신도회·신도단체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중앙신도회 실천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긴급 대표자 회의에서는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을 위

원장에 선임했으며, 중앙신도회장단 2명, 교구신도회 2명, 종단등록단체장 1명으로 상임위원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2월 중앙신도회 신년하례법회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중앙신도회 실천위원회를 공식 창립하는 한편 사찰방재 예산 모금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 대표자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날치기로 진행한 새해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고 전역 사각민 문화재보호 방재예산은 산불피해와 성보의 보존을 위해 전 종도가 참여하여 조성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밖에도 △민족 고유 문화재를 수호하고 육성함에 적극 앞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지난해 12월25일 ‘조계종 교구신도회·신도단체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중앙신도회 실천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장 △종단의 신도조직화와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신도등록사업’에 적극 참여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교원 포교부장 계석스님,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손안식 중앙신도회 부회장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회장단 9명, 교구신도회장단 34명(직할10, 교구24명), 종단등록단체장 5명, 주요사찰 신도회장 6명(수도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ie@ibulgyo.com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종단 품으로

법원, 불법점유자 강제 퇴거 집행

4년 여간 임대업자의 불법점유로 삼보정재 손실을 가져왔던 중앙승가대 옛 캠퍼스인 안암학사가 종단의 품으로 돌아왔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과 함께 불법점유 당하고 있던 학사 건물에 대한 명도이전을 집행했

다. 이날 법원 집행관의 지휘 아래 600여 개 방사의 대부분 집들이 바깥으로 옮겨지고 건물은 봉쇄됐다.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중앙승가대 안암학사는 자비관, 정진관, 수행관 등 건축물 3개동과 주택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승가학원은 지난 2001년 중앙승

가대학을 김포로 이전하면서, 안암학사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하고 법진유통(대표 이순빈)에 임대했다.

법진유통은 여기에 600여개의 방을 갖추고 정진고시원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07년 4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진고시원은 최근까지 이곳을 불법점유해 삼보정재 손실을 가져왔다.

승가학원 관계자는 “안암학사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kdo@ibulgyo.com

대장경축전 주차 부지 매각

총무원, 중무회의서 승인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2월28일 중무회의를 열고 해인총림 해인사가 신청한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주차장 부지 1만2876㎡에 대한 매각을 승인했다.

매각 예정가는 7억 8000여 만원이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지난 4월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 행사 예정지 부지 2만5153㎡를 매각 승인한 바 있다.

박인택 기자

“민족문화수호…승풍진작”

호법부, 담화문 발표

성탄축하 메시지를 낭독하며 이웃 종교인들에게 불교 자비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108산사기도회 외에도 광주 무각사, 경산 안흥사 등 지역 사찰들도 교회를 방문하거나 사찰에서 성탄 축하행사를 마련하며 지역 종교인들과 온정을 나눴다.

세부적인 교리를 다들지라도 불교와 기독교는 ‘자비와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갈등과 반목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종교의 화합과 상생은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데서 비롯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성탄절에 교회에 나누신 이유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상운스님은 ‘민족문화수호와 승풍진작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국 본말사 스님들에게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중무행정 지침을 지키고 승가의 위의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호법부장 상운스님은 지난 해 12월29일자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전국 사찰과 스님에 시선이 집중되는 당면한 현실속에서 사소한 언행과 몸가짐도 승풍으로 결부되고 종단의 위상을 실추하는데 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 수행자이자 사회지도자로서 따르는 자타의 위의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인택 기자

현장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성탄절인 지난 12월25일 서울 달동네 교회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불자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한 목소리로 국민애창곡 ‘사랑으로’를 합창하며 가슴 뭉클한 종교화합의 장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선묵 해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회장 선묵스님, 서울도선사 주지)가 성탄절을 맞아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장충동 평화를 만드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일부 개신교단체의 악의적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교회로 간 부처님

인 불교평화가 잇달아 종교갈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의 편향된 종교정책으로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종교화합을 도모하고자 교회에 먼저 손을 내밀어 훈훈한 감동을 줬다. 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본·말사 주지인사

(12월23일 중무회의 결과)

성파스님
 논산 쌍계사

벽송스님
 대구 대성사

명수스님
 청송 보광사

지선스님
 경주 주사암

(12월28일 중무회의 결과)

선운스님
 밀양 자은사

휴담스님
 울산 보현사

혜전스님
 제주 보덕사

국립공원관리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환경부

www.knps.or.kr

새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주국립공원 - 대왕암 일출